

# 최근 우리나라 수출 급락세의 특징 및 요인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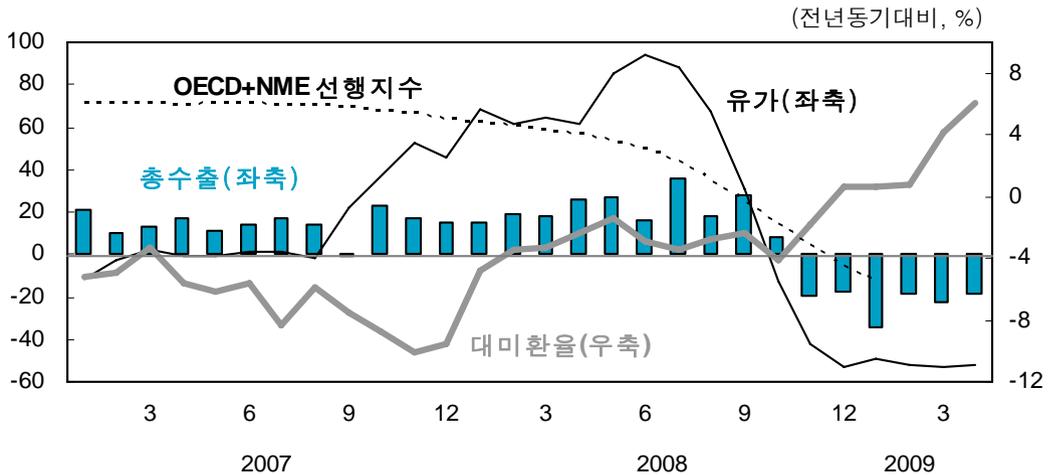
연구위원 이시욱

연구위원 이한규

## 1. 문제의 제기

-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적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작년 11월 이후 연속적으로 감소세(전년동월대비)를 유지
- 선진국과 개도국 경기의 동반 하락세가 심화된 작년 4/4분기에는 수출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기 시작하여 11월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

최근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추이 (통관기준)



주: OECD+NME 선행지수는 OECD회원국 및 비회원국 주요 6개국(중국, 인도네시아, 인도, 브라질, 러시아, 남아프리카공화국)을 포함한 국가들의 선행지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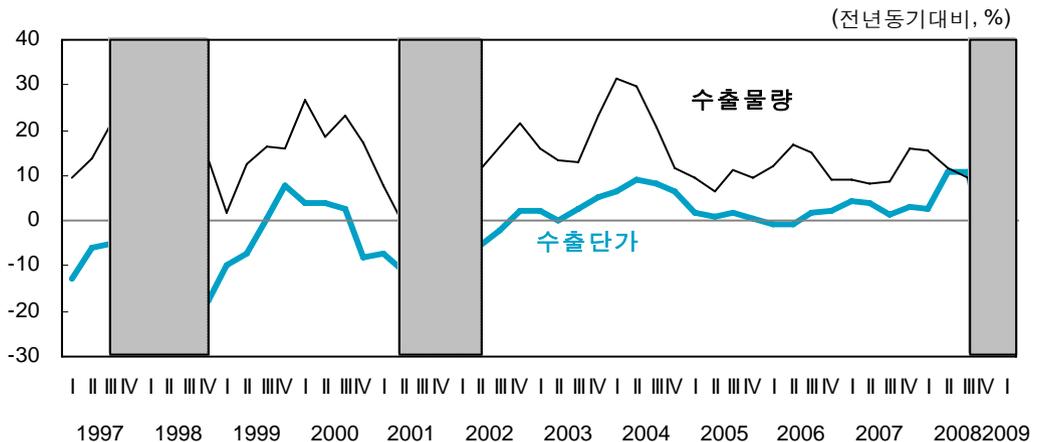
■ 본고에서는 이러한 수출 급락세의 주요 특징 및 요인을 분석하고,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

- 수출 급락세의 특징 및 동인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수출물량 및 수출 단가의 하락요인을 구분하여 분석
  - 세계경기, 환율 및 유가 등 주요 대외변수의 변화가 수출물량 및 수출단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
- 아울러, 국제비교를 통해 일본,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감소세가 상대적으로 컸던 이유를 설명
  -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의 국가별 수출비중과 수출 감소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국제비교를 통해 고찰

## 2. 최근 수출 급락세의 주요 특징

■ 최근 수출 감소세의 가장 큰 특징은 수출물량 급락 및 수출단가 하락이 동반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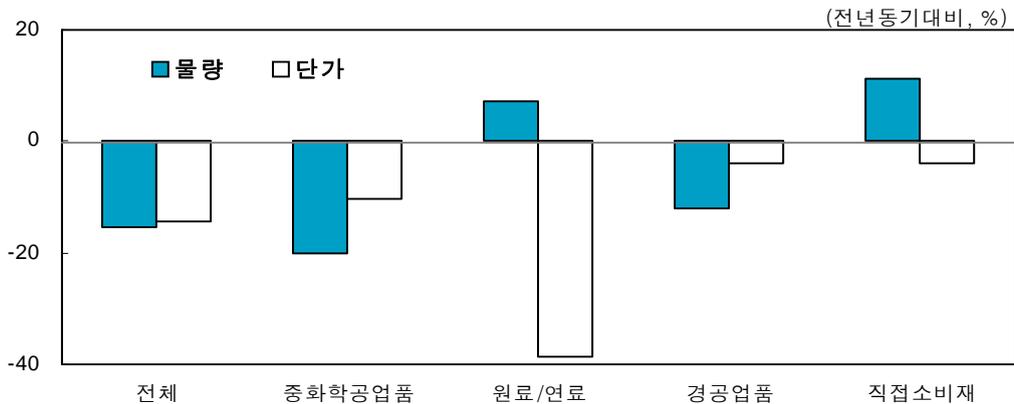
수출 물량 및 단가 변화 추이



주: 분기별 자료. 단, 2009년 1/4분기는 1~2월 평균치임.

-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수출물량 및 단가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-15.5%와 -14.3% 하락
- 수출단가가 10% 이상 급락하는 현상은 1990년대말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와 2001년 IT버블 붕괴 시기에도 관찰된 바 있으나, 수출물량이 10% 이상 급락하는 것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현상
  - 외환위기 당시에는 원화가치 급락(환율 급등) 등에 기인하여 달러표시 수출단가가 하락했으나, 수출물량은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
  - 한편, IT버블 붕괴시기에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단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낸 반면, 수출물량의 감소는 소폭에 그쳤음.
- 수출품목별로는,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 등 중화학공업품의 감소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.
  - 중화학공업품은 수출물량·단가가 모두 하락하여, 수출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
  - 원료 및 연료는 수출물량이 소폭 증가하였으나, 수출단가가 급락함에 따라 수출금액은 감소
  - 한편, 직접소비재의 경우에는 수출물량의 증가가 수출단가의 하락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서, 전반적인 수출급락 시기에도 수출금액이 오히려 증가

### 제품유형별 수출 물량 및 단가 변화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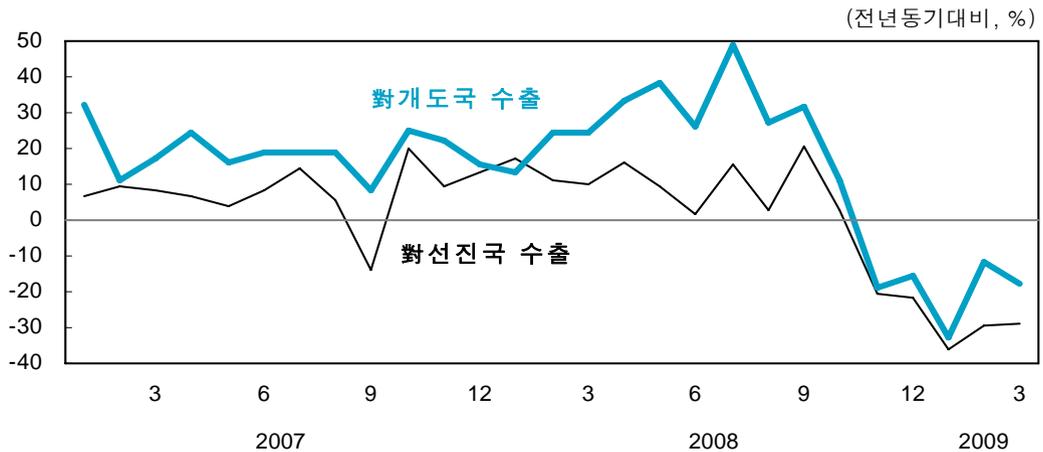


주: 변화율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계산.

■ 한편, 선진국의 경기침체 및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경기가 동반 하락한 것도 우리나라 수출의 중요한 둔화 요인으로 작용

- 선진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한 작년 상반기에도,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ASEAN, 중동, 중남미 등 원자재 생산국의 수입수요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은 견조한 호조세를 지속
- 그러나,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지난해 3/4분기 이후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수출도 빠르게 둔화
  - 우리 수출이 급락한 지난 11월 이후 OECD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-26.8% 감소한 가운데, 대개도국 수출도 -19.7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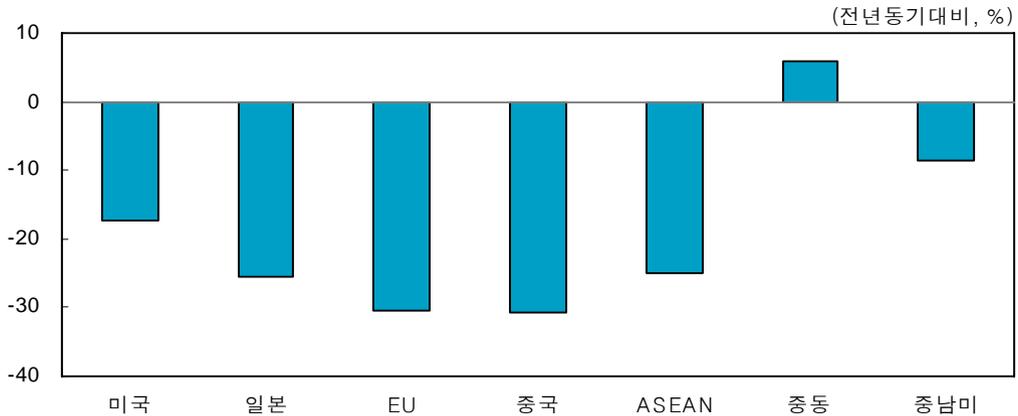
우리나라의 대선진국/대개도국 수출 변화 추이



주: 선진국은 총 29개 OECD 회원국이며 개도국은 이들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함.

- 대개도국 수출 감소는 주로 대중국 및 대ASEAN 수출의 급락에 기인
  - 선진국의 경기둔화는 중국 및 ASEAN의 최종재 수출을 둔화시키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(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품인) 반도체, 석유화학, 석유제품 등 중간재 수출을 다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
### 주요 지역별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



주: 변화율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계산.  
 자료: 무역협회 데이터베이스.

### 3. 수출물량 급락의 요인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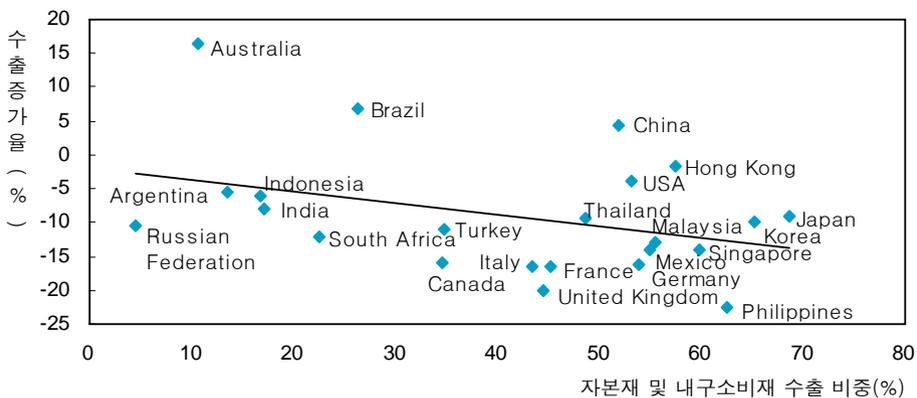
- 최근 수출물량 급락세에 기여한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, 세계경기, 환율, 원자재 가격 등을 고려한 회귀분석을 실시
  - 세계경기 변수로는 OECD 국가와 주요 개도국들의 실질 GDP를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국가별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값을 사용
  - 환율의 경우 실질실효환율을, 원자재가격의 경우 국제원유가를 대리변수로 활용
- 분석결과에 의하면, 수출물량 감소는 세계경기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, 환율 급등이 수출물량 감소세를 다소 완충한 것으로 평가
  - 작년 11월에서 금년 2월까지 세계경기 침체에 의해 설명되는 수출물량 감소폭은 약 11%로 추정되는데, 이는 전체 수출물량 감소(-15.5%)의 상당 부분을 차지
    - 세계경기가 1%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물량은 3.1~3.4%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.
  - 환율상승은 수출물량 급락을 부분적으로 완충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남.
    - 실질실효환율이 10% 상승할 경우 수출물량이 0.7%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, 같은 기간중 실질실효환율이 약 40% 상승한 것은 수출물량을 약 3% 증가시킨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

-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물량 감소폭은 세계경기 하락만으로 설명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,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추가적인 수출 급락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
- 23개국의 수출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, 자본재 및 내구 소비재 수출비중이 1%p 높을수록 지난 4/4분기 수출감소율이 0.17%p 정도 확대 되는 관계가 있었음. (Box 참조)

### 작년 4/4분기 수출급락과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 수출비중

- G7 국가 및 주요 신흥시장국을 포함한 23개국의 수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,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, 수출이 최근에 더욱 크게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남.
- 설비투자과 내구재소비는 경기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, 경제위기 상황에서 각국의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품목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되었던 것으로 보임.
  - 최근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급감도 경기순응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 중심의 수출상품 구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

###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 수출비중과 수출증가율 간의 관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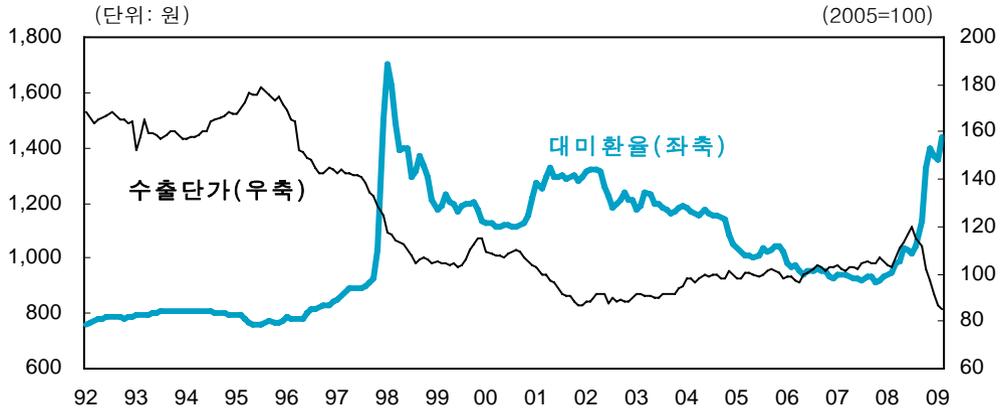
주: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 수출비중은 UN Comtrade 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치. 각국의 수출증가율은 작년 4/4분기 중 Bloomberg 자료를 사용하여 도출.

- 따라서,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최근 수출 급락의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됨.
  - 우리나라의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 수출비중은 1988년 48.2%에서 2008년 64.2%로 증가
  - 작년 11월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-19.3%와 -29.9% 급감하면서 전반적인 수출 감소세를 주도

#### 4. 수출단가 급락의 요인분석

- 수출단가 급락에 기여한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우리나라 수출품의 해외수요, 대미달러환율 및 수입단가 등을 고려한 회귀분석을 실시
  - 우리나라 수출품의 해외수요에 대한 변수로는 OECD+NME 선행지수를 사용
    - OECD+NME 선행지수는 OECD회원국 및 비회원국 주요 6개국(중국, 인도네시아, 인도, 브라질, 러시아, 남아프리카공화국)을 포함한 국가들의 경기선행지수임.
  -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주요 국가의 수출단가가 우리나라 수출단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, G7 국가들의 가중평균 수출단가 등을 추가로 고려
- 분석결과에 의하면, 최근 우리나라 수출단가의 하락은 원화가치의 급락에 주로 기인하며, 수입단가 하락 및 해외수요 감소 또한 수출단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.
  -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원/달러 환율은 전년동기대비 48.4% 상승하여 수출단가를 대략 11.6% 정도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되며, 이는 수출단가 하락(-14.3%)의 대부분을 설명
    - 회귀분석 결과 원/달러 환율이 1% 상승할 경우 수출단가는 0.24%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됨.
    - 환율 상승(원화가치 하락)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품의 달러표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며, 따라서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 수출단가가 하락할 수 있음.
  - 한편, 수입단가 하락과 해외수요 감소도 수출단가를 각각 3.4% 및 1.3% 정도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

## 환율과 수출단가 추이



## 5. 요약 및 시사점

-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급락세는 주로 세계경기 침체 및 원화가치 급락 등에 따라 수출물량과 수출단가가 동반 하락하였던 데에 기인
  - 수출상품 구성상, 세계경기 변동에 민감한 자본재 등의 비중 확대는 최근 수출 급락세를 확대시킨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
  - 수출단가 급락에는 원화가치 하락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, 우리나라 수출품의 해외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효과도 부분적인 요인으로 작용
- 향후 수출단가의 하락세는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나, 세계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는 한 수출 수요의 부진으로 인해 전반적인 수출경기가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.
  - 원화가치 및 원자재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수출단가의 하락세는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
  - 원유 등 원자재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일부 개도국에 대한 수출이 다소 회복될 가능성은 존재하나, 수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
- 한편 본고의 분석은,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출 기반 및 거시경제적 안정성을

확보하기 위해 수출선 및 수출상품의 다변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

- 자본재 등에 치우친 수출상품 구성은 수출이 세계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함으로써, 거시경제적 불안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- 중장기적으로 내수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중국 등 주요 개도국의 소비재 및 서비스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
  - 간단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, 중국의 내수부문은 수출부문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. (Box 참조)
  -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구조가 중국의 수출용 최종재 생산을 위한 부품 및 자본재 수출에 특화되어 있음을 시사

### 중국의 내수 및 수출부문이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

- 최근 중국의 수출은 세계경제 침체로 급락한 반면,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내수는 견실한 모습을 유지
  -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을 위해 중국의 내수 및 수출 부문이 우리나라 대중국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
- 간단한 회귀분석 결과, 중국의 내수부문은 수출부문과는 달리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.
  - 회귀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중국의 해외수출이 1%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0.9%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, 중국의 내수 관련 변수들은 대중국 수출의 변화를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
  - 이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내수와 관련된 최종재보다, 중국의 수출품 생산을 위한 부품 및 산업용 원자재 등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음을 반영
    - 중간재로 분류될 수 있는 상품의 비중이 대중국 수출의 77.8% (2008년 기준)
-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내수부양 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제약적일 수 있음을 시사

### <부표 1> 주요국별 자본재 수출 비중 및 수출증가율 추이

(%)

국가	자본재 및 내구소비재 수출비중 <sup>1)</sup>	수출증가율 <sup>2)</sup>		
	'05-'07평균	'08 4/4분기	'09.1~2월	'08.11~'09.2
G7	49.06	-14.06	-33.49	-25.03
캐나다	34.64	-15.91	-33.91	-26.66
프랑스	45.26	-16.61	-33.43	-24.96
독일	53.85	-16.27	-34.63	-26.50
이탈리아	43.39	-16.58	-35.92	-23.95
일본	68.63	-9.10	-40.96	-29.24
미국	53.12	-3.81	-22.46	-15.46
영국	44.55	-20.17	-33.13	-28.41
BRICs	24.96	-15.12	-23.10	-17.72
브라질	26.36	6.89	-25.72	-12.33
중국	51.90	4.37	-21.57	-12.02
인도	17.07	-7.87	-18.80	-12.14
러시아	4.53	-10.46	-47.83	-34.40
동아시아 <sup>3)</sup>	52.28	-20.38	-26.23	-22.67
홍콩	57.47	-1.75	-22.08	-14.95
인도네시아	16.69	-6.03	-34.13	-22.58
말레이시아	55.43	-12.98	-31.40	-23.36
필리핀	62.53	-22.64	-40.65	-30.95
한국	65.28	-9.88	-26.28	-22.48
싱가포르	59.90	-13.98	-36.44	-27.23
태국	48.63	-9.44	-17.59	-17.14

주: 1)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 수출비중은 UN의 BEC 분류방식에 근거하여 산출.

2) 이탈리아, 필리핀은 2009년 1월 증가율.

3) 일본, 중국 제외.

자료: 블룸버그, UN comtrade database.